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소외받는 비서울 비대학생, “인서울 대학생만 청년?”

3부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1. 청년은 없다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는 ‘청년이 분노했다’며 떠들썩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이야기하는 공정성이 모두를 위한 공정성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주의는 능력 이외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실 그것은 서울과 대학만으로 대표된 ‘청년’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지 모른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에서 청년의 범주에 소외된 이들에 주목해본다.

만연한 한국식 능력주의가 청년정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능력주의란 본래 ‘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와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성 신화’로 포장된 한국식 능력주의는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 놓고 모두 본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 또, 결과로 노력의 양을 단정 지어버린다. 최근 언론에서 조국 사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탕에는 ‘공정성 신화’로 포장된 한

언론은 서울권 학생들의 목소리만 청년의 목소리로 인식했다.

작년 말 조국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며 그와 주변에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중 청년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그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이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고려대와 서울대는 각각 집회를 시작했다. 2019년 8월 23일 고려대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서울대에서도 진상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내시위는 9월까지 이어졌고 이어 연세대까지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언론은 연신 학교에서 진행된 시위를 두고 청년들이 학교 대신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광화문·대학로 몰려나온 청년들 “이제 정의로운 나라인가”’(조선일보, 2019년 10월 4일)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됐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촛불 정권을 자임한 집권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문화일보, 2019년 10월 31일) 등으로 조국사태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에 대해 분노한다는 기사를 냈다. 이처럼 언론은 작금의 청년을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세대라고 언급했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를 벗어난 청년 “나와는 큰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나 언론의 목소리에는 소위 ‘스카이’라 대표되는 ‘인서울’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졸업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청년의 목소리로 담기고 있다. 작년 12월 24일 세계일보는 ‘서울대 설문 ‘反문재인’ 기류 왜?…소수의견과 대대표인가 보수화인가’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발행했다. 기사는 “서울



대 동문·교직원이 활동하는 ‘스누라이프(SNULife)’에 실시된 최악의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다”며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소수 의견이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비단 서울대뿐만이 아니었다. “조국 감싸기냐”…뿔난 2030’(한국일보, 2020년 1월 14일)이라는 기사에는 청년의 목소리라며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개인의 노력으로 단순 치환할 수 없는 구조적 격차 고려해야

언론에 비춰졌던 청년의 분노는 모든 청년에게 동등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를 벗어난 이들에게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출신 A씨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입시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면서 “서울에 올라와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득권의 입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은 이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이

야기”라며 “나와는 큰 상관없는 이야 기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성 인식 조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성은 출발선이 다름에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결과를 평가받길 원한다는 모순적인 경향이 드러났다. 한국리서치의 정한율 여론 분석전문위원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부모의 배경’이 ‘매우 중요’에 68%, ‘약간 중요’에 24%가 응답했으며 ‘연출’에 ‘매우 중요’에 60%, ‘약간 중요’에 30%가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의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능력 및 노력별 보수차이’는 ‘클수록 좋다’에 과반인 넘는 66%가 응답했다. 아울러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 6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우리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79%가 동의했다.

스тивен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능력주의는 허구다』에 서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

은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 말한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능력주의의 숨겨진 한계로 지적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책은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를 언급한다. 부르디외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아야만 하는 집단의 가치관, 규범, 취향 등의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며 경제력과 문화자본, 학력 같은 사회적 지위가 복합적인 격차의 공고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또 하위 계층의 아이들은 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시스템에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맹목적 능력주의 벗어나 모두의 정의를 위해

차별과 모든 것을 노력으로 치환해 버리는 맹목적 능력주의는 청년세대에 내재화됐으며 그것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전설적인 미국 미식축구 감독 베리스 스위처는 본인의 불우한 시절을 회상하며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3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불평등을 단순히 “노력을 안 해서 그려” 혹은 “나는 노력을 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해”라는 말로 환원하는 사고방식은 연대의 청년정치를 불가능으로 결론 짓게 한다. 대신, 담론을 형성할 때 본인의 정의가 모두의 정의인지, 누군가는 그 정의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과 논의만이 청년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20-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9. 12. 01. ~ 2020. 06. 14. 기간 내 취득 실적(단, 2019-2학기 포인트 인정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원부터 2,000,000원원까지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포인트 학생기록 : 포인트 기준		
•교내·외 타강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학점별 기준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축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학점(학점,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원 성적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6년제 의약대학자 15 학점)		
•신청기간 : 2020. 06. 15.(월) ~ 2020. 07. 19.(일) 24:00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②서류제출 : 제출서류 : 취득한 실적 원본 (※ 원본대조필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기간 : 2020. 06. 15.(월) ~ 2020. 07. 20.(일) 17:30		
- 제출장소 : 소속단과대학 행정실		
포인트 인정 처리		
•단과대학 : 실적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지급일 : 2020. 08. 21.(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2020-1학기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학점,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번	분야	학과	등급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1	학업 역량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1등급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국제대회 3위 국내 대회 3위 전국 대회 3위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2등급		국제대회 3위 국내 대회 3위 전국 대회 3위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3등급		국제대회 3위 국내 대회 3위 전국 대회 3위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4등급		최우수상
2	전문 역량	우수 학술지 논문 개재	1등급	SSO급 학술지	2,000,000
			2등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자	1,000,000
			3등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자	500,000
3	국제 화역	영어	1등급	SSO급 학술지	2,000,000
			2등급	국제 저서	1,000,000
			3등급	SCE급 학술지	500,000
			4등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자	200,000
			5등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자	100,000
4	기타 역량	영어	1등급	토익 930점 이상 / 토플(TOEFL) 110점 이상 뉴텝스 462점 이상 / G-TELP level 1/75% /IELTS 7.50점 이상 오피(OPICs) AL / IH / 토익스피킹 : 190	200,000
			2등급	영어 1등급 이상 / 토플(TOEFL) 110점 이상 뉴텝스 382점 이상 / G-TELP level 2/75% /IELTS 6.50점 이상 오피(OPICs) IM3 / 토익스피킹 : 160	100,000

3 국제 화역	일본어	1등급	일본어 성적 우수자	JLPTN1급 JPT 715이상	200,000
		2등급	중국어 성적 우수자	JLPTN2급 JPT 540이상	100,000
4 기타 역량	불어	1등급	불어 성적 우수자	HSK6급 이상 / 신 HSK5급 이상	200,000
		2등급		HSK5급 / 신 HSK 4급 210이상	100,000
3 국제 화역	러시아어	1등급	불어 성적 우수자	DELF C1 - C2	200,000
		2등급		DELF B1	100,000
4 기타 역량	독일어	1등급	러시아어 성적 우수자	TORFL-2	200,000
		2등급		TORFL-1	100,000
3 국제 화역	스페인어	1등급	독일어 성적 우수자	- telc Zertifikat Deutsch B1 210점 이상 - Goethe-Zertifikat Deutsch B1 70점 이상	200,000
		2등급		- telc Zertifikat Deutsch B1 180점 이상 - Goethe-Zertifikat Deutsch B1 60점 이상	100,000